

“요셉의 환란대처법”

창세기 37:18-28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순간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가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양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해서 그곳에 갔다가 형들에게 붙들려 구덩이에 던져 졌고, 그 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게 되는 이 황당한 일을 요셉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음해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곳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며 풀려나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요셉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했는지, 그의 환란 대처법에 대해 살펴 보고 규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 그는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누명과 억울한 일을 만나도 불같이 화를 내고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1:21)

그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주신 아흔 아홉개에 대한 감사보다, 없어진 한가지로 인해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없어진 하나로 인해 오히려

그동안 주셨던 아흔 아홉가지에 대한 감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 1:22)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줍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입술을 벌려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그는 적응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부인으로부터 음해를 입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낮은 환경에서 그는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강점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적응하며 그 가운데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니, 간수도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에게 여러가지 제반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우리는 환영받을 수도 배척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참 귀했던 사실은, 그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상황에 잘 적응했던 사람이지만,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 장에는 감옥안에 있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기분에 맞춰 해석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말은 관원장은 3 일만에 풀려나 복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3 일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과 잣대로 인해, 어긋나고 잘못되는 신앙에 대해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치의 거짓이나 숨김없이 선명하게 옳은 것과 그른 것,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워싱턴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형들의 모함을 받아 구덩이에 빠진 것도, 또 거기서 꺼내어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된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도, 감옥에서의 모든 만남들도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 16:33)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일을 해나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을 때에도 홍해 앞에 서게 되자,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3-14)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언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애굽의 대군들을 뒤로 하고 막다른 길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홍해와 같이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워싱턴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요셉은 여러가지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모습은 의연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떠합니까? 요셉과 나의 대처하는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되돌아 보았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